

1. 항공우주청 조기 사천 설립을 위한 방안?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항공우주청 지원전담팀을 만들어 설립에 필요한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청사, 주거지원, 설립 예정부지 제공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우주부품 연구개발, 인력양성, 항공우주전문훈련 기능을 담당할 항공우주벤처타운을 조성하고,

항공우주청과 소속 직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을 마련해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항공우주산업의 주요 인사 및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전지역에서 항공청과 우주청을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항공과 우주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항공은 우주 관련 위성과 발사체의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핵심 기술을 공통으로 활용하는 상호 호환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연계육성 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보잉(Boeing), 유럽의 에어버스(Airbus) 등 항공업체가 중심이 되어 우주기술 고도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NASA)나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같이 전 세계 주요 기구들도 우주와 항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항공과 우주를 분리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악의 주장이 될 것입니다.

대전지역의 항공청과 우주청 분리 주장에 대한 불합리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투기 소음에 대한 방안?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오는 7월 중순부터 초도 시험 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F-21 시험비행은 총 6대가 2026년까지 약 4년간 2,200소터(1일 평균 2~3회)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KF-21 시험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놀라는 일이 없도록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소음 영향권 내 가축사육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는 KAI 측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접수와 현장 조사를 시행해 처리할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피해 민원 접수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KF-21 시험비행이 시작되면 항공기소음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환경공단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음 영향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사천공항 주변 6개 지점(가산, 구호, 유천, 축동, 양동, 두량)에는 국가 항공기소음 측정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사업이 국방부에서 발주한 국책사업이기에 아무런 대책 없이 고스란히 소음피해를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자 KAI와 발주자 국방부에 법적 제도개선을 협의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KF-21 시험비행이 시작되면 상황에 따라 소음피해 현황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KAI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국방부 법 개정 미반영 시 KAI에 피해보상 협의를 하고 청구하겠습니다.

3. 인수위 구성하지 않은 이유?

인수위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해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시청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 요청과 사무실과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천시의 자료, 정보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수위원이 이러한 권한과 지원을 등에 업고 공무원 인사는 물론 공사 인허가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수위원들이 시정 방향에 대해 잘못된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면 이는 곧 사천시민과 사천시의 불행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9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사천시를 잘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잘 이끌어갈 것으로 믿었기에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로지 시민과 시의 발전만을 바라보며 시정을 펼치겠다는 저의 의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를 구성하는 대신 시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충분히 좋은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면서 깨끗하고 공정하며 활기가 넘치는 사천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4. 사천관광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천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시도 즐길 거리가 넘치는 관광도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관광객들이 머물다 가는 관광도시,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여러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안관광지에 관광 레저타운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섬들을 연결하는 보도교인 무지갯빛 생태탐방로를 건설하고,

체류형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400실 규모의 실안 호텔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양도 일원에 사천 앞바다와 실안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대관람차를 건립하고, 비토섬 일대에는 별주부테마관, 어드벤처 시설 등을 건립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젊은 세대를 겨냥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별주부전의 고향 비토섬’, ‘사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 등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여행인 ‘함께 소원 담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시에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도보 여행길 이정표 정비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관광업계의 코로나19 극복에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